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후보지 찾습니다

4차례 입지 공모 신청지역 없어
남원시 전역 대상 타당성 용역
희망지역 편익시설 등 인센티브

환경적 조건(자연환경요소를 고려한 경관 저해여부 등) ▲기술적 조건(부지조성 및 시공성 등) ▲경제적 조건(토지취득비용 등) 등을 따져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남원시의 생활폐기물 처리는 재활용 선별이외에 전량 매립 처리함에 따라 매립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하지만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부정책에 따라 매립시설 외의 대체 시설인 소각시설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시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소각시설 입지 공모를 실시했으나 신청지가 없어 지난 8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소각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

읍면동 이동장회의 등을 통해 순회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소각시설 입지 유치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원하는 지역은 각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소각시설

설 유치 희망에 대한 신청의견을 받고 있다.

입지 유치 희망지역은 입지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입지로 선정된 지역은 관련법에 따른 주민지원 및 보상으로 주민편의시설 등 주민복지를 위한 인센티브 등을 받게 된다.

향후 조사 결과는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도 거치게 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책을 위해서는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건립이 꼭 필요하다"며 "시민의 협력·상생 방안 및 소각시설 입지선정에 따른 주변 지역 주민지원 등 긍정적 검토로 남원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농기센터, 농업인대학 운영 최우수상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적으로 '농업인대학'의 운영을 가장 잘한 기관에 선정됐다. <사진> 남원시는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의 '2022년 농업인대학 운영평가'에서 전국 147개 시군 중 우수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그중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농업인대학을 대상으로 1년의 교육운영 내용과 수요율·만족도 등을 중점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가 운영 중인 '남원명품농업대학'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개 교육과정(약선음식, 딸기, 청년농업인, 복숭아·대학원)을 운영하며 비대면 교육과 현장·실습 교육을 병행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남원명품농업대학은 지난 3월에 입학식 이후 1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91%의 교육생이 졸업했으며 졸업생 교육이수를 전후한 학습수준 향상도 및 소득수준은 25% 이상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인배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남원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적극 반영해 편성하고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농업기술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내년부터 3년간 정읍시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

시, 초등태권도연맹과 업무협약

정읍에서 오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정읍시는 최근 이학수 시장과 고경운 정읍시 의장, 최권열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시와 시의회, 연맹 등 3자간의 협약에 따라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태권도의 저변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정읍에서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를 연다.

대회는 전국에서 2500여명의 어린이가 태권도선수들과 대회 관계자가 참가할 예정이며, 4박5일 일정 동안 관내 숙박업과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또 정읍 고유의 대회 명칭을 붙여 스포츠 대회를 통한 지역 홍보와 문화·역사·관광 자원 홍보도 함께할 계획이다.

시는 국제·전국 단위 태권도 경기가 가능하도록



이학수(왼쪽 네번째) 정읍시장과 고경운(왼쪽 여섯번째) 정읍시의회 의장, 최권열(왼쪽 다섯번째)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읍시 제공>

체육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확충해 '스포츠 강소 도시 정읍'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는 학부모가 동반하는 대회로 대규모의 방문객이

정읍시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읍을 방문한 선수단과 가족들이 정읍시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내년예산 7505억원...청년정책 역점

올해보다 3.93% 증액 편성

고창군이 민선8기 균형운영 방향을 담아낸 내년 예산을 7505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3.93% 증액한 규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면서 청년정책과 관광산업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볼거리,먹거리, 즐길거리 사업에도 예산이 더해졌다.

'고루 잘사는 풍요로운 농어촌'을 위해 농업·농촌 분야에 총 178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기분형 공익직불사업(472억원) ▲고리포 및 상포권역 어촌뉴딜사업(69억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확대 지원(25억원) 등이다.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과 저온저장고지원사업 등 군비지원 농·축업 분야 26개 사업 보조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편성해 농가부담을 최소화

했다. 친환경 전기운반차지원사업과 마을드론 방제사업 등 다수의 신규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친환경 ESG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도 확대됐다. ▲투자기업 보조금 조성액 확대(25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융자 확대지원(20억원) ▲기업운영자금 융자 확대 지원(7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 호응이 큰 지역화폐를 중단없이 운영하기 위해 고창사랑상품권 700억원을 발행하기 위해 군비 94억원을 최우선 편성했다.

'누리고 즐기는 문화관광 1번지'와 관련한 예산은 모두 547억원이 편성됐다. ▲달빛노을 양고살재 조성사업(28억원) ▲군립미술관 건립사업(25억원) ▲문수산주변 관광자원화사업(10억원) 등이 중점 편성됐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 공익직불금 1만1965농가 360억 지급

소농직불금 일괄 120만원씩

고창군이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을 시작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는 지난해에 비해 107명이 증가한 총 1만1965명이며 이 중 소농직불금 대상자는 4018명, 면적직불금 대상자는 7947명이다.

총 지급면적은 지난해보다 288ha 감소한 1만 9207ha로 총 지급금액은 360억원이다.

지급대상자가 늘었지만 지급면적과 지급액은 예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줄었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금 중복지급 방지와 강화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농지 요건 등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2020년부터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는 기존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부리직불이 하나로 합쳐진 제도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은 0.1~0.5ha 미만을 경작하는 소규모 농업인

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괄적으로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별로 구간별 차등 지급 단가를 적용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인건비 및 농자재 가격 상승과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12월 중 도내 농지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농농업환경보전직불금과 고창군 거주 농가(연접 시군 경작농지 포함)에 군비 직불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12월6일까지 공급 업체 모집

정읍시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흥사랑기부제를 앞두고 기부자에게 선불할 답례 품목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정읍시는 최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지역 대표성과 인지도, 품질과 유통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고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18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답례품은 쌀, 귀리, 토마토 등 농·특산품 7개 품목과 쌍화차, 한과, 떡 등 가공식품 9개 품목이다. 특히 정읍을 대표하는 최상품 한우와 약용특화작물인 지황을 이용한 제품도 고급답례품

으로 선정해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읍시는 이달 30일부터 12월6일까지 답례품을 공급할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12월 중 제2차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사업목적과 품질, 지역 연계성 등을 평가해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연말까지 답례품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만의 특성을 살린 기획 상품과 체류형 답례품 등을 발굴해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정읍에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기부할 수 있도록 고흥사랑기부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